



특별강연

知的資源의 開發과 精神革命

白 樂 濬 博士
(延世大學校 名譽總長)

오늘 내게 주어진 문제는 여러 분께서 아시다시피 「知的資源의 開發과 精神革命」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여러 면에서 생각해 보건대 필경 知識의 生活化의 問題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좀 복잡할지는 모르지만 먼저 이 낱말 하나 하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고 결론을 내려볼까 하는 것입니다.

知識資源이라 하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첫째는 기존하는 지식 즉, 과거 여러 천년 동안에 우리 인류가 축적하여 놓은 기존의 지식을 의미하는 점도 있는 줄 압니다. 여기에 “개발”이라는 말이 붙는다면 이는 기존의 지식과 기존의 기술을 말하는 동시에 또한 미래를 의미하는 뜻도 없지 아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자원이라고 하면 과거 수천년 동안 인류가 이룩하여 놓은 기성지식과 기성 기술을 의미할 뿐 아니라 미래를 지향하는 지식과 기술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범위를 넓힌다면 기성지식은 우리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요, 동양에 있는 지식만도 아니고, 서양의 지식까지를 포함한 온 세계의 기성지식을 가리키는 것을 지적자원이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광범위한 지적자원을 가진 것이 우리 인류의 행복이라면 큰 행복이요, 우리가 선조들로부터 물려 받은 귀중한 유산입니다.

둘째로 생각할 문제는 지적자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장소를 찾아야 할 터인데 그것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적자원이 존재하고 있는 지역은 첫째 우리 인간이라고 하겠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지식이 발전되어서 우리 사회에 사는 사람으로서, 정치의 사람으로, 사회문화의 사람으로서 또한 높은 차원으로서는 우리의 심령을 소유한 사람으로서의 지식이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 그 자체가 지식자원을 가진 장본인들입니다.

또한 우리의 지식자원이 어디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나면 이 우주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지식은 이렇게 우주안에 있는 오묘한 학문을 개발하기 위해 생겼고 모든 우주 안에 있는 지식이 곧 우리로 하여금 개발하고 연구하는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면 모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우주의 모든 상태와 사실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발표하는 것이 아마 지식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지식 범위는 우리가 사는 지구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근래에 알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소위 월구(月球-지구의 상대로서의 달을 월구라고 호칭하고 싶습니다)와 기타 다른 여러 우주의 태양계에도 있는 것이 사실임으로 우리의 지식이 있는 곳은 우리 인간과 자연계와 온 우주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광범위한 지식을, 또한 다량의 지식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개척하고 발전시키는 것들이 개발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의 기성지식을 개발하는 것이 한가지 개발인 동시에 우리 지식이 아직도 미래에 속하고 발견하지 못한 것이 있는 만큼 개발에는 발명과 발견도 포함되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것을 글자로 해석해 보면 지식은 어디 있으며 지식은 무엇이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의 개발은 어떤 것이라는 데 대한 공통적인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이 광범위하게 있는 만큼 그 분량 또한 광범위하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이 우리에게 끼쳐 준 지식자원을 참고해 본다면 한정이 없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옛부터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배움의 바다 즉 학해(學海)라고 하는 것은 깊고 멀어서 저편 언덕에 이르기가 평생을 가도 다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지식의 범위가 그만큼 넓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 분들은 도서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인 만큼 가령 중국의 四庫全書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할 때 그

분량이 얼마나 막대합니까? 우리 나라의 규장각전서 같은 것은 우리 민족에게는 큰 보화이지만 분량으로 볼 때 사고전서에 비할 바가 못됩니다.

여러 분이 십진법을 가지고 온 지식을 분류하려고 할 때 지금은 0. 아래로 자꾸 늘어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식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합니까? 지식이 동양에 있는 지식만 그러하지 아니하고 서양사람들이 발견한 지식도 우리가 모른다고 하지 못할 처지에 있고 서양사람들이 가진 학문을 또 생각해 본다고 할 때 그 범위가 방대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근래에 우리 학문을 정리하고, 또 어떤 테두리 안에 넣어서 우리 후세에 전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우리 교육이라는 것이 그랬습니다. 저들은 과거의 우리 문화를 뭉쳐서 조그맣게 만들어 후대에 전하는 것이 교육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교육이라는 것은 과거의 문화를 뭉쳐서 후대에 전하는 것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개척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의 철학자 한사람이 자기가 서양에 있는 모든 지식을 한번 뭉아 묶어 주려고 하였습니다. 「모티모어·아들러」라고 하는 철학자로서 몇해 전에 54권의 책을 내면서 모든 학문의 조목을 종합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책에서는 서양사람들이 가진 바 소위 Great Idea를 다 모아보면 102가지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다른사람들이 책을 많이 내면서 반복되는 것은 다 제해버리고 실상 서양사람들이 가진 바 지식이라는 것의 정수를 다 모아보면 102개의 큰 그레이트·아이디어로 집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02개의 아이디어거나 몇천권의 책자이거나를 말할 것 없이 어쨌거나 근래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광범위합니다. 오늘 날 우리의 도서관은 날마다 확장한다고 하여도 그 책들을 다 모을 수가 없어서 지금은 어떻게 책을 간편한 방식으로 보관 보장하기 위해서 Micro-film 등 여러 가지 방식을 쓰는 것은 책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편리한 방식을 취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식의 분량이 늘어감에 따라 우리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길을 찾을까 하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분들은 우리의 도서관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우리의 도서관을 통하여 학문이 나가는 길을 맡아서 지도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어떠한 방편의 길을 찾으려고 하면 어떤, 무슨 책을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업인 줄로 압니다. 근래에 와서 우리나라의 도서관사업에도 많은 확장이 되지를 못해서 어떤 도서관

에는 순전히 관리방면만 치중하는 편도 많이 있지만 아마 도서관사업이 더 확장되 나가는 경우에는 소위 Reference Service하는 것을 비롯하여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문헌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도서관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의 범위가 이렇게 방대함으로 우리는 이 모든 면을 정리하고 조직화해서 지식을 찾는 사람들을 지도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자원이 어디있느냐하면 우리가 관리하는 도서관이나 박물관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우리의 지식의 자원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요 또 구하기 쉬운 것도 사실이지만 오늘 날 우리 지식은 과거의 것을 모아 후세에 전하는 것만이 교육이 아니요,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지식자원이니 만큼 우리 미래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우리 도서관에 들어오지 아니했고 소장되지도 않음니다. 그러므로 우리 도서관 사업하는 사람들은 지식의 발전에 따라 이것을 정리해야만 될 것입니다마는 이 지식의 자원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못한 곳에 까지 우리의 생각이 미쳐야만 우리의 지식자원을 찾을 수가 있을 줄 압니다.

이상에 말한 지식을 가지고 종합해서 말한다면 지식자원의 개발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이 기존하는 지식이거나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지식이거나 간에 우리는 어떠한 진리의 파악을 위하여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과 학생들의 지식연구를 지도하는 도서관원들이 다같이 협력하고 있는 줄 압니다. 진리를 체득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생활화하는데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내게 주어진 강연제목의 골자인 것 같습니다.

지식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어디에 있는 것을 알고 이것을 정리할 줄 알아서 우리가 이것을 얻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지식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하면 개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과거를 연구하는 방식이나 미래에 대한 연구를 하는 등 개발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줄 압니다만 우리는 진리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진리를 얻어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문 곧 지식을 가진다면 그 지식이 우리에게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중세의 유명한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즉 “지식은 곧 세력이다”(knowledge is power)라는 말입니다. 과연 Knowledge는 Power입니다. 그런데 이 Power의 규율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것이 우리 도서관인들이 하는 일의 하나인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Knowledge가 어떻게 Power

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Knowledge 그 자체가 Power 라고 하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영백과사전은 큰 Power 가 될터인데 아무리 방에 가져다 쌓아 놓아둔다고 하여도 거기에서 어떤 힘이 생기는 것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나라의 유명한 성자중의 한 분이요 큰 학자이신 율곡선생이 쓴 책가운데 격몽요결(擊蒙要訣)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가운데 율곡선생은 배운 것을 행해야지 “행하지 아니하면 쓸데없다”고 해서 “서자서 아자아”(書自書 我自我, 책은 책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Knowledge가 Power는 Power이지만 책을 이용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Power 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지적 자원을 개발하여 가지고 이를 정신적 혁명에 쓰자고 한다면 어떻게 개발한 지적자원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書自書我自我가 오늘 날 우리 교육의 형태입니다. 책은 책대로 있고 책에서 가르키는 대로 우리가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갖췄다고 할지라도 우리 정신생활이나 다른 물리적 생활에 공헌하는 바가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율곡선생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人生斯世, 若無學問, 無以爲人”(사람이 세상에 나서 학문 곧 지식을 가지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학문이라는 것은 별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써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학문이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우리가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의 자원을 개발해 왔지만 그것이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그것은 곧 “서자서 아자아”로 책에서 가르키는 일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여야 책이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행하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행하자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적자원을 개발하는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정말로 Knowledge 가 Power가 되게 하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지식들을 가지고 있지마는 왜 생활화하지 않느냐 하는데에서 소위 근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Motivation, 내가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Motivation이 생기지 않고서는 아무리 많은 지식을 배웠다고 하여도 무용지물이 되고 또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가지고 있는 지식을 좋은 반면, 옳은 반면, 남에게 유익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동기를 생기게 할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는 근대에 우리가 말하는 바와 같이 가치관의 작용이 클 줄로 압니다. 내가 행하는 일은 가치가 있으니까 행하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이 Motive가 되고 우리의 개발된 지식이 비로서 Power의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치관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입니까. 우리 주변에 일반사회에 유행하는 가치 기준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삼을 것입니까, 아니면 지식의 기초 위에서 나의 가치관, 나의 인생관, 나의 우주관, 여기에 의해서 나의 동기가 생기게 되고 이 동기에 의해 행동화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을 기초로 한 가치관에 의해서 나의 동기가 생기게 되고 그 동기에 의해서 행동할 수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지식자원을 개발해서 어떻게 응용함으로써 개인이 만족할 수 있고 사회에 유익하고 온 세계 문화에 유익할 수 있도록 개발한 지식을 응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인생관에 의해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발된 지식자원을 어디다 응용하여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에 이를 정신혁명에 응용해야 하겠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신혁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께서는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혁명이라고 하면 무엇을 파괴하는 것으로 연상되기가 쉽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그런데 혁명이라는 말에 “가죽 혁”(革)자는 왜 들어가 있습니까? 가죽을 표시하는 한자(漢字)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가죽 피”(皮)자와 “가죽 혁”(革)자가 그 것입니다. “가죽 피”(皮)자는 가죽에 털이 붙어 있는 가죽을 의미하고 가죽에서 털을 내어 그것을 이겨서 보드랍게 만들어 놓은 것은 혁(革)자입니다. 혁명(革命)의 혁이 의미하는 것은 털과 기름과 뻘뻘한 것을 다 없애버리고 이겨서 보들 보들하게 만든 것입니다. 즉, 모든 불순한 것을 다 제거해 버린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명”(命)이라 하는 것은 옛적말로써 천명(天命) 즉, 임금이 하늘의 명을 받아 임금 노릇을 하는데서 비롯하였으므로 혁명(革命)이라 함은 불순하고 불량한 것을 개량하여 좋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던 것인데 이를 파괴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 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혁명이라는 것을 몇차례 경험해 보아 혁명이 무엇인가를 잘 아실 줄 압니다만 이 자리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혁명의 목적은 건설하기 위해서 파괴하는 것이지 파괴하기 위해서 파괴하는 것은 혁명이 아니라 난동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혁명은 반드시 건설이 짝하여서 같이 병행해 나가야지 만일 건설이 없다고 한다면 순전히 파괴적 행동 그 자체에 지나지 못하

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혁명을 한다고 하면 깊고 오묘한 이야기보다 상식적으로 이야기 해 보면 우리의 험하여 버릴, 원치 아니하는 가족피자에 털이 있고 기름이 있고 뱃뱃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 소극적 방법의 혁명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 다음에 혁되게 보드랍고 쓰기 좋게 가족을 만드는 건설적 방법의 혁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매우 곤란한 문제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 받은 훌륭한 유산과 귀한 전통들이 많이 있는데 새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이것을 다 버려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일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할진대 어느 것을 취하고 어느 것을 버려야 할 것이냐를 따진다 면 교육자나 정치가나 어느 것을 택하고 어느 것을 버리라고 간단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든 구선(舊善)에 신선(新善)을 더해야 할 것은 사실이지마는 구악(舊惡)에 신악(新惡)을 더해야 한다고 할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구악(舊惡)에다 신악(新惡)을 더한 현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는 혁명의 본의를 잃어 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옛부터 내려오는 구선(舊善)에다가 신선(新善)을 더 하는 것이 우리의 건설적 혁명이 될 수 있는데 만일 구선까지 잃어버린다면 오랜 전통과 기초까지를 잃어 버리게 되어 우리는 기초없는 국민이 되고 말 것이며 과거를 잊어버리는 정신병자가 되고 말 것이므로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으며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서 새 것을 받아들여야 될터인데 우리 중에는 새 것만 좋다고 해서 과거의 것은 모두 내버리는 사람이 없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며 받아들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일은 어려우나 우리의 좋은 전통은 받아들이고 거기에 새로운 것을 부가하는 것이 혁명해 나가는 파괴면과 건설면이 병행되는 방식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의 가장 뚜렷한 정신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혁명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근대화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근대화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가령 서양문화의 근대화의 발자취를 더듬어 본다고 하면 맨먼저 사람의 사상을 자유롭게 하고 인간의 의의를 찾겠다고 하는 혁명으로서의 문예부흥이 있었습니다. 문예부흥은 왜 문예부흥이라고 하는가? 상고의 회랍과 로마의 문화를 잃어버렸다가 그것을 다시 발견했기 때문에 부흥이라는 말을 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있었던 종교개혁은 무엇이었던가요? 사

람이라는 것이 양심적 자유를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운동으로서 이른 바 종교개혁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사람이 살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 이상 사회생활이나 국가생활에서 평등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정치혁명인 불란서 혁명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영국을 중심으로 하여 산업혁명이 일어나 여러 가지 발명과 발견이 뒤따름으로써 경제혁명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날에 여러 가지 혁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모든 혁명의 목적은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높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인격일 것입니다.

구라와 사람들과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이와 같은 혁명을 4·5백년의 장기간을 두고 하나씩 단계적으로 치루어왔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는 이와 같은 혁명을 불과 몇십년안에 다 치르려고 하는 까닭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문예부흥도 하고 종교개혁도 하고 정치혁명도 하고 산업혁명도 하고 민주혁명도 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모든 혁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질과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혁명이라고 하면 반드시 건설이 부수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근대화를 이룩하는데 밟지 않으면 안될 단계를 밟지 않고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릴 몇 가지 혁명이 모두 정신적 의의를 포함하여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날을 혁명시대라고 할 때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건설해야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정치가들과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줄 압니다.

오늘 날 우리 나라가 요청하는 정신혁명은 무엇인가요? 무슨 정신을 요하는 것입니까? 어느 한 사람의 의견으로서 이것이 곧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이다 하고 말하기는 힘들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원칙만을 들어 몇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국가적으로 본다고 할 때 우리 국가는 자유, 독립, 민주, 통일을 모두 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표시하는 정신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어떤 분은 애국정신이라고 말하고 어떤 분은 애족정신이라고 이야기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라, 동포를 사랑하라,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이것이 우리 민족의 최상의 염원인 자유독립과 민주통일을 이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자주독립과 민주통일을 다 이룩해 놓은 후에는 또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날의 급속도로 전환하는 사회에서는 바로 이것을 추구하는 것

이 우리들의 정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정신은 어떻게 실현시킬 것입니까. 애국 애족을 아무리 하려고 애를 써도 자기에게 인생관이 있고 자기에게 가치관이 있어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안하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확고하게 이룩되어야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애국 애족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덧붙일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를 가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닙니다. 민주사회라는 것은 어떠한 사회입니까. 민주사회라는 것은 횡적 사회입니다. 이전에 있던 봉건사회는 종적 사회입니다. 그래서 아래 있는 백성이 임금을 섬기고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붙들고 돈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해서 종적 사회를 이루었지만 지금 우리의 민주사회는 횡적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약한 사람이나 아래 있는 사람이 위사람이나 강한 사람에게 봉사하는 그것이 아니라 피차에 서로 봉사를 받는 것이 그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이 다름없지만 우리는 다 봉사를 하며 동시에 봉사를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해서는 시대를 착각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봉사가 없이 남에게 봉사를 받으려고 해서는 미안한 말이지만 불한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횡적 사회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봉사를 하는 동시에 봉사를 받으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내 동족을 사랑하고 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봉사를 해야 되는가? 왜 내 나라와 동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이런 애국 애족을 하고 횡적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여러 철학자와 정치인들의 이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론중에 영국의 정치학자 제리미·벤담(J. Bentham) 같은 이는 “다매수의 사람이 최대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모든 정치의 목적이라고 하여 개인의 도덕보다도 공중의 쾌락을 알세운 공리주의를 내세웠습니다. 또 중국의 양주(楊朱)와 같은 학자는 자기의 머리털 하나를 뽑아 천하가 유익하다고 하더라도 하지 않겠다고 말함으로써 개인의 행복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절대적 이기주의자는 오늘날 같은 봉사사회에 있어서는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거스트·콩트(A. Comte)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인생의 참 목표다”라고 한 말입니다. 이타주의로 사는 것이 우리 사람의 도리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양주(楊朱)나 스펜서(H. Spencer)처럼 이기주의, 즉 에고이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콩트처럼 이타주의, 즉 엘투루이즘(altruism)으로 사는 사람은 매우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이기주의로서는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맹자의 말처럼 불탈불업(不奪不讓) 만일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이익만을 취한다면 남의 것을 모두 빼앗아야 할 터인데 누가 빼앗기나요?

만약 이타주의로 산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롭게 할 때는 다른 사람도 내게 이롭게 할 것이 사실이니깐 이 사회의 모든 문제는 잘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주의로 살아서 사회분쟁과 혼란을 가져오는 것보다는 피차에 서로 이타주의로 삶으로써 통일과 단합과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현명한 태도가 아니겠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지적 자원을 개발해서 이것을 힘이 되도록 쓸려고 하면 우리의 동기가 올바르게 되어야 하겠고 바른 동기로서 오늘 날 이 민주사회에 살려고 하면 우리의 인생 목표를 봉사로서 살아야만 우리의 정신혁명이 생기지 나 자신만을 위해 살겠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확실히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70여년 동안을 산 경험으로 볼 때 그렇고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보아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어찌 어떠한 정신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조목을 들어 얘기할 수도 있겠으나 다만 일반적인 면에서 얘기한다고 할 때에 오늘 날 횡적 민주주의에 사는 정신은 이타주의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타주의는 남에게만 이로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이익을 주는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구악(舊惡)에 신악(新惡)을 더하는 악순환을 제거하여 버리고 구선(舊善)에 신선(新善)을 더하는 건설이 있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날 이 사회에는 개발되어야 할 지식들이 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식을 개발하는 일꾼들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개발함으로써 책은 책대로 나는 나대로 있을 것이 아니라 피차 돕겠다고 하는 생각 피차 봉사하겠다는 생각으로 정신의 혁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정신이 혁명이 생기는 대로 우리 민주사회의 건전한 발전이 이룩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 주시길 바랍니다.